

## 계 열 문 항 2

&lt;가&gt;

**청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내 인생에 대해 제일 궁금해 한 사람들은 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만난 사람들도 포함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꼭 랜덤박스를 여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늘이 또 내게 어떤 서프라이즈를 보내 주실까? 내가 항상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일상생활에선 절대 물어보지 않거나 물어보기 고약한 수많은 질문을 어떻게 엘리베이터라는 이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잘도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요?

(마치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하듯)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쳤어요, 며칠 지나면 나아요. (관객을 향해) 전 그냥 웃고 이렇게 말해요.”

“씩씩하긴요, 필요.”

“일해요, 직업 있어요.”

“대단하긴요, 필요.”

“결혼했죠, 결혼했어요.”

“네, 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는 님은 왜 엄마랑 같이 안 다니세요?”

제일 짜증 나는 건, 남들이 묻지도 않고 내 휠체어를 밀어주는 거예요. 난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 유별난 전동 헤드는 시속이 25킬로라고요. 당신 체력이 제일 좋았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도 절대 못 따라잡는 속도라고요. 난 정말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어요.

전 이런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할 거야,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요구가 반드시 있을 거야, 당신의 신체와 생활의 어떤 부분은 분명히 수수께끼일 거야……. 자주 겪는 상황이지만 난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왜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약해 보여야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느끼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해 보여야 사람들이 그걸 정상이라고 느끼는지, 나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정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 천쓰안(陳思安)의 <제일 가까운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죠?>(2023) 중에서

&lt;나&gt;

지배적인 기대를 벗어난 신체가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 반대로 기대에 부응하는 신체는 항상 보상을 받는다. 다르다고 간주되는 몸을 둘러싼 ‘일탈의 내러티브’는, 보통인 것 또는 최상의 것이란 개념에 부합하는 몸을 둘러싼 ‘보편성의 내러티브’와 병행한다. 이 문화적 이분법에 따라 이 몸은 열등하고 저 몸은 우수하다, 이 몸은 아름답거나 완벽하고 저 몸은 기괴하거나 추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 같은 시각적 다름의 경제학 속에서 눈에 띄는 ‘표식이 없는(unmarked)’ 몸은 ‘정상’이라는 중립적 공간 속에 있게 되지만, 이에서 벗어나는 몸은 타자화된 채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서 과잉된 의미가 부여되는 병신, 혼혈, 이방인 같은 형상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힌 타자화된 존재로 재현되며 사회적 권력과 지위로부터 배제당한다는 점에서 ‘다름을 분류하는 이념’의 산물이다.

‘정상인(normate)’이라는 신조어는 문화적 자아의 가려진 주체 위치를 의미한다. 눈에 띄는 ‘표식이 있는(marked)’ 타자들의 몸이 만들어 낸 ‘정상’의 경계를 통해서만 ‘정상인’의 윤곽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표식이 없는 이들은 이렇게 형성된 ‘정상인’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거의 완벽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데 이용한다. 결국 ‘정상인’이란 그 같은 위치가 부여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갖는 구성된 정체

성인 것이다.

그런데 ‘정상인’ 범주에 속한 이들의 위치는 우리가 신체적, 문화적 타자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과 담론을 자세히 살펴볼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관계**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신체의 표식은 항상 타자성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상인’의 형상은 ‘정상’에서 벗어난 신체의 가시화된 타자성을 통해 은폐되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중립화된다.

### <다>

사람들은 대체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관념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차별론도 결국은 차별은 옳지 않다는 기본 전제 위에 성립한다. 사람들은 적어도 평등이라는 원칙을 도덕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에게 차별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에 가담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는 생각은 어쩌면 내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는 간절한 희망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다. 영화 <부당거래>(2010)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일상에서 이 말은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나는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호의와 권리에 대한 이 이른바 ‘명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무언가 베풀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은 호의로서 일을 하고 싶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권력관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호의성(시혜성) 자선사업이나 정책은 그저 선한 행동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일종의 권력행위이다. 만일 당신이 권리로서 무언가 요구한다면 선을 넘었다고 비난할 수 있는 권력까지 포함한다.

사람들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있다. 사회 안에서 나의 위치에 따라 특권을 가지기도 한다. 돈이나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특권은 비교적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특권이란 말이 일부 재벌이나 고위층의 권력으로 좁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권을 일부 사람들만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특권이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을 말한다.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특권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발견’인 이유가 있다. 일상적으로 누리는 이런 특권은 대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서 많은 경우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권은 말하자면 ‘가진 자의 여유’로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이다.

2-1. <가>의 주인공이 처한 문제상황을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의 ‘권력관계’가 구성되는 방식을 각각 설명하고, 둘 사이의 유사성을 논하시오. (600±60자)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 1. 일반 정보             |                            |                   |
|----------------------|----------------------------|-------------------|
| 유형                   |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                   |
| 전형명                  | 2025학년도 모의논술               |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인문계열 / 문항 2-1, 2-2         |                   |
| 출제 범위                | 교육과정 과목명                   | 문학,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
|                      | 핵심개념 및 용어                  | 권력관계, 차별, 배제, 불평등 |
| 예상 소요 시간             | 50분 / 전체 100분              |                   |

2. 문항 및 자료

<가>  
**청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내 인생에 대해 제일 궁금해 한 사람들은 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만난 사람들도 포함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꼭 랜덤박스를 여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늘이 또 내게 어떤 서프라이즈를 보내 주실까? 내가 항상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일상생활에선 절대 물어보지 않거나 물어보기 고약한 수많은 질문을 어떻게 엘리베이터라는 이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잘도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요?

(마치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하듯)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쳤어요, 며칠 지나면 나아요. (관객을 향해) 전 그냥 웃고 이렇게 말해요.”  
 “씩씩하긴요, 필요.”  
 “일해요, 직업 있어요.”  
 “대단하긴요, 필요.”  
 “결혼했죠, 결혼했어요.”  
 “네, 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는 님은 왜 엄마랑 같이 안 다니세요?”

제일 짜증 나는 건, 남들이 묻지도 않고 내 휠체어를 밀어주는 거예요. 난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 유별난 전동 헤드는 시속이 25킬로라고요. 당신 체력이 제일 좋았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도 절대 못 따라잡는 속도라고요. 난 정말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어요.

전 이런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할 거야,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요구가 반드시 있을 거야, 당신의 신체와 생활의 어떤 부분은 분명히 수수께끼일 거야……. 자주 겪는 상황이지만 난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왜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약해 보여야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느끼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해 보여야 사람들이 그걸 정상이라고 느끼는지, 나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정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 천쓰안(陳思安)의 <제일 가까운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죠?>(2023) 중에서

<나>

지배적인 기대를 벗어난 신체가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 반대로 기대에 부응하는 신체는 항상 보상받는다. 다르다고 간주되는 몸을 둘러싼 ‘일탈의 내러티브’는, 보통인 것 또는 최상의 것이란 개념에 부합하는 몸을 둘러싼 ‘보편성의 내러티브’와 병행한다. 이 문화적 이분법에 따라 이 몸은 열등하고 저 몸은 우수하다, 이 몸은 아름답거나 완벽하고 저 몸은 기괴하거나 추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 같은 시각적 다름의 경제학 속에서 눈에 띄는 ‘표식이 없는(unmarked)’ 몸은 ‘정상’이라는 중립적 공간 속에 있게 되지만, 이에서 벗어나는 몸은 타자화된 채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서 과잉된 의미가 부여되는 병신, 혼혈, 이방인 같은 형상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힌 타자화된 존재로 재현되며 사회적 권력과 지위로부터 배제당한다는 점에서 ‘다름을 분류하는 이념’의 산물이다.

‘정상인(normate)’이라는 신조어는 문화적 자아의 가려진 주체 위치를 의미한다. 눈에 띄는 ‘표식이 있는(marked)’ 타자들의 몸이 만들어 낸 ‘정상’의 경계를 통해서만 ‘정상인’의 윤곽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표식이 없는 이들은 이렇게 형성된 ‘정상인’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거의 완벽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데 이용한다. 결국 ‘정상인’이란 그 같은 위치가 부여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갖는 구성된 정체성인 것이다.

그런데 ‘정상인’ 범주에 속한 이들의 위치는 우리가 신체적, 문화적 타자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과 담론을 자세히 살펴볼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관계**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신체의 표식은 항상 타자성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상인’의 형상은 ‘정상’에서 벗어난 신체의 가시화된 타자성을 통해 은폐되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중립화된다.

<다>

사람들은 대체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관념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차별론도 결국은 차별은 옳지 않다는 기본 전제 위에 성립한다. 사람들은 적어도 평등이라는 원칙을 도덕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에게 차별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에 가담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는 생각은 어쩌면 내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는 간절한 희망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다. 영화 <부당거래>(2010)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일상에서 이 말은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나는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호의와 권리에 대한 이 이른바 ‘명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무언가 베풀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은 호의로서 일을 하고 싶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권력관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호의성(시혜성) 자선사업이나 정책은 그저 선한 행동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일종의 권력행위이다. 만일 당신이 권리로서 무언가 요구한다면 선을 넘었다고 비난할 수 있는 권력까지 포함한다.

사람들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있다. 사회 안에서 나의 위치에 따라 특권을 가지기도 한다. 돈이나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특권은 비교적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특권이란 말이 일부 재벌이나 고위층의 권력으로 좁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권을 일부 사람들만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특권이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을 말한다.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특권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발견’인 이유가 있다. 일상적으로 누리는 이런 특권은 대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서 많은 경우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권은 말하자면 ‘가진 자의 여유’로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이다.

2-1. <가>의 주인공이 처한 문제상황을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의 '권력관계'가 구성되는 방식을 각각 설명하고, 둘 사이의 유사성을 논하시오.  
(600±60자)

###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일상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다양한 제시문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되었다. 1번 문항은 <나>의 논지를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하여 <가>의 상황을 이해하는 문제다. <나>는 우리 사회가 지닌 '몸의 정상성' 이념이 어떻게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 내는가를 논한다. 이 논지를 활용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가>의 주인공이 경험한 편견과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지 보고자 했다.

2번 문항은 몸을 둘러싼 '정상'과 '일탈'의 이분법이 어떻게 권력관계를 만들고 또 이를 은폐하는지를 논하는 <나> 지문의 논지와, 호의로 행해지는 도덕적 행동 속에 숨겨진 권력관계의 문제를 논하는 <다> 지문의 논지를 이해한 후, 두 지문이 모두 감춰진 채 작동하는 권력관계와 우리 사회의 은폐된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논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그 유사성을 서술할 수 있는지 묻고자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   |   |                   |
|-------------|---|---|-------------------|
| 적용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br>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br>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   |                   |
| 관련 성취기준     | 1. 교과명: 국어  |   |                   |
|             | 과목명: 문학   | 관련  |                   |
|             | 성취기준<br>1   | [12문학04-01]<br>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 제시문<br><가><br><다> |
|             | 2. 교과명: 사회  |   |                   |
|             | 과목명: 사회문화   | 관련  |                   |
|             | 성취기준<br>1   | [12사문02-01]<br>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 제시문<br><나><br><다> |
| 성취기준<br>2   | [12사문04-03]<br>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제시문<br><가><br><나><br><다>                                      |                   |
| 3. 교과명: 도덕  |   |   |                   |
| 과목명: 생활과 윤리 | 관련  |   |                   |
| 성취기준<br>1   | [12생윤01-03]<br>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일상의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 제시문<br><다>  |                   |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 교과서 내 |    |     |      |    |       |        |
|-------|----|-----|------|----|-------|--------|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년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    |     |      |    |       |        |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 교과서 외                |                            |       |      |                   |       |        |
|----------------------|----------------------------|-------|------|-------------------|-------|--------|
| 자료명(도서명)             | 작성자<br>(저자)                | 발행처   | 발행년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제일 가까운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죠? | 천쓰안<br>(김우석 옮김)            | 연극과인간 | 2024 | 21쪽,<br>29쪽, 34쪽. |       | ○      |
| 보통이 아닌 몸             | 로즈메리<br>갈런드 톱슨<br>(손홍일 옮김) | 그린비   | 2015 | 19-21쪽.           |       | ○      |
| 선량한 차별주의자            | 김지혜                        | 창비    | 2019 | 25-28쪽            |       | ○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천쓰안, 『제일 가까운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죠?』(연극과인간, 2024)

이 글은 중국 극작가 천쓰안의 희곡 중 한 장면으로, 주인공 청즈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청즈는 자신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무례와 편견에 대하여 말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을 퍼붓는다. 직업이 있느냐 묻고, 결혼은 했는지, 했다면 남편은 좋은 사람인지 묻는다. 심지어 성인인 그에게 왜 보호자와 함께 다니지 않는지도 묻는다. 모두 청즈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질문들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그의 휠체어를 밀어주기도 한다. 청즈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보기를 원하다가도, 때로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불굴의 인물로 보기를 원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시문 <나> :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보통이 아닌 몸』(그린비, 2015)

이 글은 신체를 둘러싼 ‘정상’과 ‘일탈’의 이분법적 내러티브를 논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정상인’은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존재의 위치에 서게 되지만, ‘정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병신, 혼혈, 이방인과 같이 사회적 낙인이 찍힌 타자화된 존재가 된다. 타자화된 존재들은 사회적 권력과 지위로부터도 배제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정상인’이라고 여기고 그 같은 위치가 부여하는 권력을 행사하지만, 정작 ‘정상인’의 형상은 일탈된 타자들의 ‘눈에 띄는 표식이 있는 몸’을 통해서만 윤곽이 드러난다. 즉, 정상인이란 가시화된 타자성을 통해 구성된 정체성인 것이다. 정상인이 갖는 위치와 권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타자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과 담론을 자세히 살펴볼 때만 우리는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항상 타자성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상인의 형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중립화된다.

제시문 <다>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창비, 2019)

이 글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호의 속에서 어떻게 권력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서술한다. 사람들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은폐되어 작동하는 불평등이나 일상에서 누리는 자신의 특권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베풀 자원이 있다는 것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평범한 사람의 권력이다. 나아가 호의를 베푸는 이들은 호의에 대한 통제권도 놓지 않으려 한다. 특권은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을 말한다. 사람들은 재벌이나 고위층의 특권만을 생각하지만, 특권은 평범한 사람들도 갖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일상의 특권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 논제의 구성

2-1. <가>의 주인공이 처한 문제상황을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가>의 주인공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차별적 시선과 편견의 말을 경험한다. <나>는 신체를 둘러싼 ‘정상’과 ‘일탈’의 이분법적 내러티브와 이를 통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작동을 논한다. <가>의 주인공이 지닌 ‘눈에 띄는 표식이 있는’ 신체는 <나>에서 설명하는 ‘다름을 분류하는 이념’의 작동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시다. <나>의 논점을 파악한 후 이를 적용하여 <가>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했다.

2-2. <나>와 <다>의 ‘권력관계’가 구성되는 방식을 각각 설명하고, 둘 사이의 유사성을 논하시오. (600±60자)

<나>는 몸을 중심으로 한 ‘정상’과 ‘일탈’의 이분법적 내러티브 속에서 어떻게 권력관계가 형성되는지를 서술하는 글이다. 정상으로 판단된 몸은 자연스럽게 지배적 위치에 놓이지만, 그렇지 않은 몸은 주변화되고 배제된다. <다>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호의 속에서 어떻게 권력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서술하는 글이다. 베풀 자원이 있다는 것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평범한 사람의 권력이다. <나>와 <다>의 권력관계는 비가시적이고 은폐되어 있으며 심지어 권력관계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와 <다>의 논지를 파악하고, 두 지문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감춰진 권력관계와 은폐된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했다.

| 6. 채점 기준 |   |     |
|----------|---|-----|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1-1      |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논제에 대한 파악】</p> <p>① &lt;가&gt;와 &lt;나&gt;가 모두 신체를 둘러싼 ‘정상’과 ‘일탈’의 내러티브와 관련된 지문임을 파악해야 한다.</p> <p>【제시문 &lt;가&gt;의 문제상황 파악】</p> <p>② &lt;가&gt;의 주인공의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에 기인한 말과 행동임을 이해해야 한다.</p> <p>【제시문 &lt;나&gt;의 논지 파악】</p> <p>③ &lt;나&gt;의 지문이 신체를 둘러싼 ‘정상’과 ‘일탈’의 이분법적 내러티브와 이를 통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작동에 논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p> <p>【제시문 &lt;나&gt;의 논지를 통해 &lt;가&gt;를 설명】</p> <p>④ &lt;가&gt;의 주인공이 가진 장애가 &lt;나&gt;에서 말하는 ‘눈에 띄는 표식이 있는 신체’이며 그 때문에 &lt;가&gt;의 주인공이 ‘정상이 아닌’ ‘일탈된’ 신체로 타자화되고 있음을 서술해야 한다.</p> <p>⑤ 성인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 하고 있는 &lt;가&gt;의 주인공에게 어떤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lt;나&gt; 지문에서 서술된 ‘다른 몸’을 타자화하고 낙인찍고 배제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p> <p>&lt;유의 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li> <li>-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li> </ul> |     |
|          |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 1등급 |
|          |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성이 불충분한 경우  | 2등급 |
|          |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가 부족한 경우  | 3등급 |
|          |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한 경우   | 4등급 |
|          | ①, ②, ④를 충족하고, ③, ⑤가 부족한 경우   | 5등급 |
|          |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불충분한 경우  | 6등급 |
|          | ①, ②를 충족하고 ③, ④가 부족한 경우   | 7등급 |
|          |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 8등급 |
|          |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 9등급 |
| 1-2      |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     |

|     |  |     |
|-----|--|-----|
| 1-2 |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b>【논제에 대한 파악】</b><br/>                 ① &lt;나&gt;와 &lt;다&gt;가 각각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의 문제를 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은폐된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p> <p><b>【제시문 &lt;나&gt;의 권력관계 구성 방식 파악】</b><br/>                 ② &lt;나&gt; 지문을 통해 몸을 중심으로 한 ‘정상’과 ‘일탈’의 이분법적 내러티브가 어떻게 권력관계를 형성하는지 파악한다. 정상으로 판단된 몸은 자연스럽게 지배적 위치에 놓이지만, 그렇지 않은 몸은 주변화되고 배제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p> <p><b>【제시문 &lt;다&gt;의 권력관계 구성 방식 파악】</b><br/>                 ③ &lt;다&gt; 지문을 통해 평범한 사람이 지닌 권력을 파악한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호의 속에도 권력관계가 있다는 점, 베풀 자원이 있다는 것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평범한 사람의 권력이라는 점을 서술해야 한다.</p> <p><b>【제시문 &lt;나&gt;와 &lt;다&gt;의 유사성 파악】</b><br/>                 ④ &lt;나&gt;와 &lt;다&gt;의 권력관계는 비가시적이고 은폐되어 있으며 심지어 권력관계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다. &lt;나&gt;와 &lt;다&gt;는 모두 우리 사회의 감춰진 권력관계와 은폐된 차별을 논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p> <p>⑤ &lt;나&gt;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은폐되는지, 나아가 어떻게 하여 중립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lt;나&gt;의 권력관계에서 가시화되는 것은 타자들이며 이에 따라 ‘정상인’의 구성 과정도, 또 이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권력관계도 감추어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서술해야 한다.</p> <p>⑥ &lt;다&gt;의 권력관계가 어떤 이유로 감추어지는지, 나아가 어떻게 하여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의 특권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 유리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서술해야 한다.</p> <p>&lt;유의 사항&gt;<br/>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br/>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p> |     |
|     |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한 경우  | 1등급 |
|     |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 또는 ⑥이 부족한 경우  | 2등급 |
|     |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 ⑥이 부족한 경우  | 3등급 |
|     |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 ⑥이 부족한 경우  | 4등급 |
|     |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가 부족한 경우  | 5등급 |
|     | ①, ②, ③을 충족한 경우  | 6등급 |
|     | ①, ②, 혹은 ①, ③을 충족한 경우  | 7등급 |
|     |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 8등급 |
|     |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 9등급 |

7. 예시 답안

2-1.

<가>의 주인공 청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차별적 시선과 편견의 말을 경험한다. <나>에서 논하는 ‘정상’과 ‘일탈’의 이분법적 내러티브와 이를 통한 차별과 배제의 작동을 <가>는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름을 분류하는 이념’에 따라 ‘눈에 띄는 표식이 있는’ 청즈의 몸은 기괴하고 열등한 것으로 낙인 찍히고 타자화된다. 사람들은 청즈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일도 잘할 수 없으리라 여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지위나 권리를 누리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2-2.

<나>는 몸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속에서 어떻게 권력관계가 형성되는지를 서술한다. 몸을 둘러싼 ‘보편성’과 ‘일탈’의 이분법은 보편에서 벗어난 ‘다른 몸’을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고 낙인찍는다. 정상으로 판단된 몸은 자연스럽게 지배적 위치에 놓이지만, 그렇지 않은 몸은 주변화되고 배제된다. <다>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호의 속에서 어떻게 권력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서술한다. 베풀 자원이 있다는 것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평범한 사람의 권력이다. 나아가 이들은 호의에 대한 통제권도 놓지 않으려 한다. <나>와 <다>의 권력관계는 비가시적이고 은폐되어 있으며 심지어 권력관계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의 권력관계에서 가시화되는 것은 타자들이며 이에 따라 ‘정상인’의 구성 과정도, 또 이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권력관계도 감추어진다. <다>의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의 특권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나>와 <다>는 우리 사회의 감춰진 권력관계와 은폐된 차별을 논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